

심진기 센터장에게 듣는 패키징기술센터의 내일

## 패키징 산업의 미래, 대한민국의 앞날



제품은 다양해지고 수출은 활발해진 시대. 많은 물자가 바다를 건너 국경을 초월해 전달되는 지금, 수출 물품을 보호해 줄 안전한 패키징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손꼽힌다. 과거에는 그저 '포장'이라는 용어 안에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분야지만, 현대사회에서 '패키징 산업'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중요한 취급을 받고 있다. 국내 패키징 산업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앞날과 맥을 같이 할 것이라는 패키징기술센터 심진기 센터장으로부터 패키징기술센터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 Q. 패키징기술센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패키징기술센터는 지난 2006년, 산업부에서 국내 패키징 산업을 보다 조직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결심으로 설립됐습니다. 기본적인 역할은 패키징(Packaging)에 대한 연구개발입니다. 중소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한다든지 혹은 시제품을 제작할 때 기술 개발을 도와주고 있어요. 아이디어가 상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지속가능한 패키징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설계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현장 근무 인력에 대한 재교육도 실시하고 있어요. 새로운 패키징 기술에 대한 세계 시장의 흐름과 기술동향, 규제와 표준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죠. 이처럼 새로운 정보를 계속 접함으로써 패키징 분야 종사자들이 경쟁력을 갖고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험분석 및 성능평가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국내 패키징 산업이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산업으로 진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시아 패키징 산업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장하고 신소재와 신기술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 Q. 패키징 산업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패키징'이라고 하면 그저 상품을 포장하는 포장대와 디자인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패키징은 결코 단순한 분야가 아닙니다. 선진국의 경우 제조 산업과 서비스 산업 중간에 존재한다고 해서 '2.5차 산업'이라고도 합니다. 현대시대의 패키징은 제품보호를 넘어 새로운 소비를 창출합니다. 소비자와 생산자를 이어주는 커넥터(Connector)인 거죠. 우리가 음료를 선택할 때 맛 본 후 구매하기도 하지만 신제품의 경우 패키징을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패키징이 일종의 마케팅으로 역할한 것입니다. 즉, 본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본 제품의 진품 여부, 혹은 다른 이의 손이 닿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것도 패키징의 역할입니다. 굳게 닫혀있는 고급양주가 이에 해당합니다. 패키징에 의해 특정 산업이 발전하거나 확대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화장품 산업입니다. 사실 많은 화장품이 있지만 기능의 차이는 별반 크지 않아요. 다만 중요한 건 포장이죠. 일례로 에어리스 펌프(Airless pump)를 활용해 공기가 내부로